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1년도 표어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 마태복음

온유한 자의 복

(마 5:1-5)

온유는 헬리어로 “프라오스 praos”인데, 유순하고,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무기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프라오스는 야생마의 엄청난 힘이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길들여진 야생마는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길들여져서 절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박노철 목사

1.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까

헐기 부리는 자,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는 자, 자신의 통제 능력을 상실한 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일터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하여 자신도 불행한 삶을 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헐기와 화를 절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성경에는 온유한 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델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이라는 한 미친 왕으로 인해 비참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을 큰 곤란으로부터 구해낸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자가 되어 15년 동안 늪과 동굴을 전전하며 짐승 같은 생활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힘과 명분이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는 복수와 응징의 엄청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분노와 힘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의 궁극적인 모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절제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2.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땅이란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경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과 안식과 회복의 경계가 점점 넓어져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땅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욱 견고하게 이뤄질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땅이 차지하는 의미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견고하게 이뤄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와 안식과 회복의 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견고하게 이뤄지는 복을 원하십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통해 헌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들이 되어서 그 부드러운 힘을 마음껏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얻어 늘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e Blessing of the Meek

(Matt. 5:1-5)

The word ‘meek’ in Greek “praos” means gentle, mild, and soft, but not enervate. “Praos” could be similar to a wild horse that is domesticated but still possessing tremendous power. It does not mean that the domesticated wild horse becomes weak. However, because the wild horses are domesticated, they can control themselves considerably.

1. How can we be the meek?

Those people who can vigorously react, who cannot control their temper, who lose their self-control, and who cannot control their feelings, are only left hurting their loving family. Such people can also hurt lots of friends or fellow employees in the workplace. And these people will be left living a very unhappy life.

If so, how can we control our vigor and temper? It is no other but by being tamed with God’s word and obeying it, can people control themselves.

There are many meek people who appeared in the Bible. The first model of such a person is David. David lived in unceasing chaos because of the disobedient and disturbed King Saul. David was a hero of Israel who had killed Goliath the giant and rescued Israel from a drastic situation. Nevertheless, by being a fugitive to avoid Saul, by wandering from swamp to cave, David lived a life like a beast for fifteen years.

David had several chances to kill Saul. He had his power and moral duty, and also he had a terrible resentment filling his heart with retaliation and retribution. However, the reason why he could moderate his behavior and subdue his resentment, controlling his power and feelings was solely from focusing and depending on God’s word. Our fully revealed example of the meek is Jesus Christ. Jesus was able to do everything, but he didn’t use his ability thoughtlessly. Instead, he controlled himself and achieved God’s will.

2. The blessing of the meek

It is said in the Bible, “The meek will inherit the earth.” Here the word “the earth” means the boundary between the rest and peace that we enjoy. In other words, as the boundary of peace, rest, and restoration increase, so do the relations between people.

The earth is also a means for God’s word and will to be fulfilled. The implications of the meaning of the word ‘earth’, is extraordinary. What the Lord called and promised Abraham was “the land of promise,” Canaan. Therefore, what Jesus said, “They will inherit the earth” means that we will enjoy and perfectly receive God’s blessings and promise through His word.

My beloved Christians!

Do you want the blessings of peace, rest, and restoration? Do you want the blessings of God’s promise to come upon you? Do you devote yourself to God through your material and immaterial blessings?

Before God, by living a meek life, using a meek power, and submitting to God’s will giving all glory to God you are to inherit the earth.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always be happy and bless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박노철 목사 특강

10.28 (금), 특별금요기도회 - 기질을 알면 행복이 보인다
10.30 (주일) / 11.6 (주일), 주일찬양예배 - 은사 발견 세미나

‘하나님은 내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자녀들을 어떤 기질로 만드셨을까?’ 서로의 기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행복이 보이기 시작한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알아보고 그 은사대로 섬기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도 중요하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1인 1사역의 꿈이 분명 해지기를 소원한다.

2011 사명자 대회 15일째 진행 중

10월 21일(금) 오후 7시 현재 713명 참여, 성경통독 3독중



지난 10월 9일(주) 시작된 2011 사명자 대회가 온 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열기로 이어지고 있다. 24시간 연속 기도는 맡은 자들이 책임 있게 잘 감당하므로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이번 사명자대회는 10월 21일(금) 오후 7시 현재 713명 이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였으며 성경은 3독 중에 있다. 찬양예배시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가 매주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주는 중등부 순서이다.

2011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은혜중에 마쳐



매년 우리교회에서 열리는 성경암송대회 본선이 은혜중에 마쳤다. 10월 21일(금) 오후 7시 602, 603, 609호에서 진행된 2011년 성경암송대회에 각 교회학교별 예선을 거친 20명의 성도들이 참여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 성경을 암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심사 결과, 성경암송대회 대상에 안철수, 진상윤이 차지하였다. 찬양예배 시간에 시상과 암송도 한다.

<교육 1~2국>

대상: 안철수 진상윤
금상: 한예준 은상: 송지현 동상: 김보겸 이혜나

<영어암송>

금상: 고윤상
은상: 박주원 정운재 오수민 (중등A팀)
은상: 장소영 황성진 박민선 김태연박혜나 남유라(B팀)



제3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실내조정 부문 은메달 획득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경상남도 진주에서 열린 제3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실내조정 부문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한 호산나학교 서민규(우측) 군이 남자지적 개인전에서 3분12초9의 자신의 최고기록을 달성하며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또한 남녀 혼성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서민규 군의 활약으로 경기도는

전국체전사상 처음으로 조정종합우승의 쾌거를 달성하였다.

서민규 군은 다음달 1일 청주에서 열리는 제 34회 전국지적장애인체육대회 금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 중이며 좋은 결과로 서울교회와 호산나학교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정원에 ‘엄마’ 들을 초대합니다



양금희 교수

학령 전 아동을 뜻하는 ‘유아기’는 인간의 발달과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귀한 자녀들을, 지으신 분의 뜻대로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의 결단은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일 것입니다.

유아기의 자녀 양육은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뿌리를 어디 내리게 할까, 적당한 거름은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열매를 바라보며 정원을 가꿀까? 이와 같은 불안한 물음이 오늘의 ‘엄마’ 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선물로 받았지

만,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 앞에서 매일 고개를 떨구는 ‘엄마’ 들을 위해, 서울교회 꼬꼬마 가배학교에서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가꾸고 있는 정원사는 누구입니까? 내 자녀가 오늘 누구와 함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모든 ‘엄마’ 들이 이 강의를 통해 ‘아름다운 정원사’로서 새롭게 태어나시길 소망합니다.

· 강사: 양금희 교수 (장로회신학대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교육철학, Dr. theol./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B.A.)/연세대학교 대학원(M.Ed.)/독일 Tubingen 대학교(Dr.theol.)]

· 날짜/장소: 11월3일(목) 오전 10:30~12:00 / 706호 (자녀 동반 가능)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25]

(문 22) “멜기세덱은 역사적 인물이었습니까? 아니면 신화적 형상이었습니까?”

(답) : 창14:18-20 말씀을 읽으면 성경의 다른 부분과 같이 정직한 역사적 이야기에 틀림이 없습니다. 단과 호바 사이에 원수들을 몰아넣고 잃어버린 것과 전리품까지 빼앗아 온 아브람에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와 아브람에게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18-19)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진질된 예배를 드린 신자였습니다.

멜기세덱은 별다른 제사장으로(히7:15)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신 것입니다.(히5:10) 문제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과 같이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히7:3)한데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 예수처럼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이 그의 부모로 되어 있으나 실은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듯이 멜기세덱에게는 부모도 시작도 끝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람에게 갑자기 나타나 복을 빌어 준 멜기세덱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림자였습니다.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의 모형으로 아론이나 레위인보다 더 큰 제사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대제사장 직분을 가리킨 분이었습니다.(시110:4)

- (1) 멜기세덱은 의의 왕을 의미합니다.(히7:2)
- (2) 멜기세덱은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었습니다.(히7:2)
- (3) 그는 나사렛 예수처럼 부모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이었습니다.(히7:3)
- (4)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되신 그리스도는 아론이나 모세율법이 세운 제사장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신 데 이는 그 자신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히7:22-24)

쿰란동굴 11번에서 나온 멜기세덱 단편에 의하면 멜기세덱은 천사와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로도 볼 수 있으나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 때에 살렘의 왕으로 있었던 역사적 존재였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7:3에 기술된 대로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즉 조상이 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처럼 여겨질지 모르나 이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설명키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원성을 강조키 위한 설명인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주모의시간

먼지도 남기지 않고



오랜 시간 치매로 투병 하시던 권사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안식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난 시간이 아련히 떠올랐습니다.

백발의 머리와 사슴처럼 큰 눈을 가지신 이정옥 권사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모든 일 제치고 교회로 달려오시던 권사님.

손수 기른 야채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의 종과 주의 자녀들을 대접하시던 권사님.

지금도 많은 분들이 권사님의 만두맛을 그리워합니다.

새벽을 가르며 수고하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늘 따뜻한 커피를 타주셨던 권사님.

직접 기른 야채를 팔아 신학생을 도우시던 아름다운

운 권사님.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곳에서도 말없이 곳곳하게 봉사하시던 권사님.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 주방에서 말없이 도와주시던 권사님.

항상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시고 치매라는 삶 속에서도 늘 남을 칭찬하시던 권사님에게는 늘 그리스도의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시신기증을 약속하시고 마지막 남은 육신까지도 후세를 위해 다 주시며 이 땅에 먼저 한 톨 남기지 않으시고 떠나신 권사님.

권사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섬기신 분의 고귀한 삶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텐데...

권사님, 정말 사랑했습니다.

이영주 권사(5교구)

선교사도그림

캄보디아가 복음의 숲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매주 주일 오후 3시 30분, 502호에는 멀리 캄보디아로 파송된 이재율, 박병진 선교사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도고모임 회원들이 모여 있다. 대부분 권사들로 구성된 캄보디아 도고모임은 평균연령이 예수를 흠뻑 넘는 기도의 정예부대이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현지에 한글간판이 걸린 교회를 보고 동참을 결심한 분이 있는가 하면, 가족 중에 캄보디아로부터 시집온 친척이 있어 도고팀의 일원이 된 이도 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탄절 전도집회와 라오스, 미얀마 등 인접국가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자훈련을 운영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내년도 설립 예정인 군인교회와 이곳을 섬길 현지인 사역자 훈련을 준비하며 캄보디아 전 군부대 사역의 활성화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복음의 불모지와 같았던 군부대 곳곳에서 기독교인 리더들이 세워지고 이들을 통하여 부대와 가정에서, 인접마을 교회에서 귀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캄보디아 성도들

캄보디아 선교사도그림은 정기적인 캠프 훈련이 가난한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정신을 기리는 캠프가 되도록,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캠프가 되도록, 본격적인 후속사역을 함께 할 동역자들(영어교사, 어린이교사, 컴퓨터교사, 한글교사, 단기 사역자, 자원봉사자)을 보내주시기를, 예배처가 없어 임시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을 위해 마땅한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군인교회 건립에 필요한 여건과 물자들을 채워주시기를 합심하여 기도하며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의 현지 사정과 선교사들의 기도제목을 긴밀히 나누며 매주 합심하여 힘있는 기도로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2% 미만인 나라이지만 최근들어 가정교회와 셀 그룹 수준의 성경공부와 기도모임이 3천개에 달할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망이 전국적으로 불씨가 되어 퍼져나가고 있다. 수많은 젊은이들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지도자가 없음을 개탄하며 새로 개척하는 교회로 속속 모여들고 있고, 이재율, 박병진 선교사는 프놈펜의 마하나임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영어캠프를 열어 이들을 수용하고 기초신앙훈련을 하는 여호수아캠프, 각급 군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인 리더들을 훈련하는 고벨로 모임, 성

터교사, 한글교사, 단기 사역자, 자원봉사자를 보내주시기를, 예배처가 없어 임시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을 위해 마땅한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군인교회 건립에 필요한 여건과 물자들을 채워주시기를 합심하여 기도하며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이웃한 미얀마, 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 기독교인 제자훈련을 이웃 동남아와 연계하여 기독교인의 리더십으로 동남아를 복음화하는 데 하나님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재율, 박병진 선교사의 사역이 복음의 씨앗이 되고 풍성한 숲으로 자라나 온 나라에 열매맺도록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사명자의 기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10월은 저마다 사명을 다해 한 해의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며 알찬 내년을 준비하느라 분주함 속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서울교회가 설립20주년을 기도와 전도운동으로 50일간 작정하여 전교인이 참여하고 있는 사명자 대회 기간 중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을 비워 종이 되겠노라 다짐합니다.

주신 소명 감당함으로 사명을 완수하지는 결단의 대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받은 직임에 충성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대명을 실천하여 영광을 돌려야 하겠다고 다짐해 보지만, 지나고보면 언제나 부족했음을 못내 감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목사님의 선창으로 교우들의 공동 기도 소리가 예배당을 메아리 칠 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마다의 가슴에 젖어드는 것을 느끼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마고 응답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결코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굳건히 지키시고 복음으로 통일조국이 이루어져, 세계를 향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주실 것을 믿고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땅 위에, 아니 서울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성령 충만한 증인들의 5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소망들이 하나하나 성취될 것입니다.

마치 아침 햇살에 아름다운 자태를 나타내듯 우리의 소망도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돌려 드립니다.

정병무 은퇴장로(3교구)



천국시민양성

어르신들의 뒷모습은 우리의 미래다

은기장 집사(장년5부 차장)

아브라함 선교회와 장년5부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아가페타운으로 야외기도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아가페타운으로 가는 길에 온 천지의 단풍은 따가운 가을햇살의 강렬함으로 물들고 있었고, 들녘의 익어가는 곡식들은 수확의 풍성함을 기대케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노철 목사님의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은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과 건강 그리고 자손들의 믿음의 계대를 통한 상급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함은 성령 임함 그 자체였고 소년소녀처럼 동심으로 돌아가 흠뻑 적신 미소와 기쁨은 천사들의 합창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서울교회의 기도

우리의 미래는 어르신들의 뒷모습입니다. 점점 소외되어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어르신들을 섬기지 못함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함을 다짐합니다.

와 헌신으로 개척중심이 되었던 어르신들이 세월의 섭리를 거역 못해 몸이 쇠약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모습은 마음이 찢어지는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중 몸이 아파 휠체어에 의지하는 고희(古稀) 넘긴 어르신은 “아가페타운에 죽기 전에 꼭 와 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졌다며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는 고백은 나의 마음을 한방 내리치는 충격이었습니다.

들이 세월의 섭리를 거역 못해 몸이 쇠약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모습은 마음이 찢어지는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중 몸이 아파 휠체어에 의지하는 고희(古稀) 넘긴 어르신은 “아가페타운에 죽기 전에 꼭 와 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졌다며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는 고백은 나의 마음을 한방 내리치는 충격이었습니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4일(월) 한국기독교학술원 제40회 학술공개세미나에서 주제를 발표한다. 27일(목) 한국군 선교연합회 49차 정기이사회에 참여한다. 28일(금) 한국 장로교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29일(토) 총회 표준주석편찬위 임원회를 소집한다.

■ 사임: 2008년 12월 28일부터 부목사로 서울교회를 섬기던 박종민 목사는 오늘(10월 23일)부로 사임한다. 박종민 목사의 사임에 따라 5, 6교구: 정수길 목사, 중등부: 황광 목사, 주부대학: 한상은 목사, 이삭/리브가: 장석남 목사가 담당한다.

■ 수상: 이인영, 윤상철, 김미래 성도(청년2부), 포스코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우상룡 성도(15교구), 금탑산업훈장

■ 득남: 11교구 김세철 성도 신아령 성도
 ■ 이사: 5교구 최정필 집사 홍지민 집사 화성시 반송동 시범한빛마을 동탄아파트 228동 302호, 6교구 서동욱 집사 진현미 집사 서울시 양천구 목1동 목동아파트 729동 105호, 6교구 설치환 집사 박정은 집사 서울시 양천구 신정 1동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924동 1404호, 7교구 송상준 집사 김수연 집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자이아파트 409동 802호

■ 주간식당봉사: 베드로선교회(10.23) 바울선교회(10.30)

■ 금주의 식사: 남영주 권사 정인건 성도 가정 최상균 집사 박혜선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제7기 서울음악교실 수료식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보빈 홍시영 허류미 곽오숙 조은정3 오민정 선영실 박성 조영만 김성철 강신행 허태호 김정애 추현숙 서해숙 임 영 김은숙(총 16명)

성경통독자 시상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5독- 윤만현 권사(5교구)
- 4독- 김희진 권사(6교구)
- 3독- 박정순 권사(16교구), 서영세 권사(6교구)
- 2독- 홍광숙 권사(4교구), 박용현 집사(5교구) 박창희 권사(2교구) 이영희권사(6교구)

- 1독 - 장항자 집사(1교구) 최정숙 집사(3교구) 김영준 장로(9교구) 이남성 집사(9교구) 전용순 권사(9교구) 황노전 권사(9교구) 오광환 장로(12교구) 김정에 권사(13교구) 정영애 집사(13교구) 정여연 성도(13교구) 청년부 김우숙 권사(14교구) 임진호 성도(14교구) 사랑부)

파이프 오르간 리사이틀

24일: 김현정 파이프오르간 독주회 / 31일: 최수황 귀국 독주회

우리 교회 영어예배부 오르가니스트 최수황 성도와 2부 예배오르가니스트 김현정 성도가 각각 10월 31일(월), 10월 24일(월) 오후 7시 30분, 양재 햇빛선교센터 사랑성전에서 리사이틀을 가진다.

네'라는 수필집을 출간하였는데, '오르가니스트가 쓰는 시편 묵상'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시대와 나라를 초월하는 시편 말씀을 가사로 하여 작곡된 음악을 토대로 기독교 증인들의 모습을 담은 것이다.

특히 최수황 성도는 최근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2011 하반기 화요 정오음악회

10월 25일(화) 박옥주 오르간 연주회 / 지난 주 차주연 연주회



이화여대 및 동대학원 졸업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오르간 전문자과정(K.A.)졸업
 독일 잘부뤼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K.E.)졸업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현 성공회대 출강,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오르가니스트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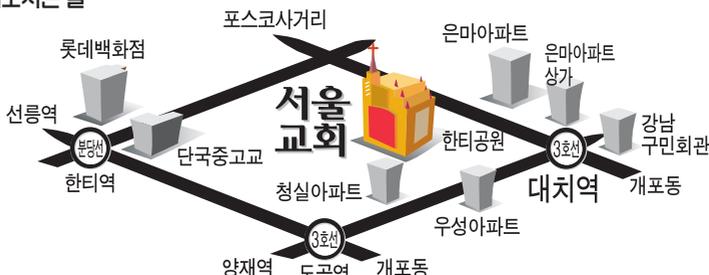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11 사명자 대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로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집중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3. "기질을 알면 행복이 보인다"와 "은사발견" 세미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에 행복의 열매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